

2019-09-25 지공여행 15차 평택과 송탄 미군부대들이 있는 곳을 둘러보자

참 맛있다.

갑오징어와 막걸리가...

눈물 찢끔 땀 왕창

오랫동안 기대했던 잔치를 혼자 벌였다.

가족은 하나라고 말하고선 나 혼자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이 찢끔은 미안했지만도

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합리화하였다오.

이젠 15차 지공여행을 떠나는 중

7호선을 타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1호선으로 바뀌탄 뒤 평택역에서 내렸다.

미군부대의 총집합인 평택의 모습을 상상하며 내렸는데 생각과 다르구나

그저 평범한 시내이구나.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미군은 커녕 일반군인 한명도 못봤다.

송탄시내도 비슷

한적한 시골 동네 같다.

송탄 버스정류장으로 한바퀴 돌아 송탄역에 오니 미군이 몇명 보인다.

미군부대 주변으로 가야 뭔가를 볼 수 있나 보구나.

그런 노력까진 하고 싶지 않다.

왜 미국에 찼찼매게 되었나?

왜 지금도 미국하면 사죽을 못쓰는 사람이 있을까?

예전에는 국방력이 북한보다 뒤졌지만 이젠 40배나 된다는데도 미국에 매달리는 것이 안타깝다.

서민들 세금 걷어 미군 주둔비 올려주는 곳이 맞는 일인가?

오산 시내도 일반적인 도시

오색시장이 엄청 넓구나

먹을거리도 많고...

눈요기 잘하고 이제야 오산역 출발

1시간쯤 걸리려나?

